

退鶴峯 金(誠一)先生の 錦城錄에 對하여

金 時 晃*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3. 錦城錄 |
| 2. 선생의 政治와 教育 思想 | 4. 맺는말 |

1. 머리말

鶴峯 金先生은 朝鮮 宣祖 16年 癸未 1583 2월 議政府 舍人이 되었다가 3월에 黃海道 巡撫御史로 差送되어 임무를 마치고 7월에 羅州牧使에 除授되었다. 그래서 8월 26일에 赴任하여 宣祖 19年 丙戌 1586 10월까지 약 3년간 羅州 고을을 다스렸다.¹⁾

대략 이 무렵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詩가 약 100餘首 전하는데, 文集에 61首, 續集에 43首 실려 있다. 이 詩와 年譜 및 行狀 등을 중심으로 하여, 牧民官으로서 선생의 政治, 教育 및 文學 思想의 一面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선생의 政治와 教育 思想

선생의 年譜와 行狀 등을 중심으로 하여 羅州牧使 在職時에 나타난 선생의 정치 및 교육 사상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1) 政治 思想

선생이 黃海道 巡撫御史의 任務를 마치고 差 復命하기도 전에 급히 羅州牧使에 除授된 動機에 대한 年譜의 기록을 보면 선생의 剛直한 성품을 잘 反映하였다. 한 不正한 관리가 강직한 선생을 두려워 하여, 王에게 進言하여 朝廷에서 멀리 地方으로 보내버림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糊塗해 버리려 했다는 것이다.

* 경북대학 한문학과 교수

1) 先生 《年譜》 및 《錦城邑誌》 나주시 문화원 1989 7 20 113面.

‘海西管內百姓 爲一時幸 方秉銓者 所占奪海田 呈訴紛然 既又按得數邑文書 有以公債數百斛 賂其宰者 其邑宰驚懼馳告 時宰患先生剛直不撓 寅緣戚里 行浸潤之譖 及先生還至松京 有筵臣白上曰 羅州新缺守 地大人民衆 素號難治 必須剛直內臣乃可 翌日特旨除羅州牧使 先生既復命 先卽拜辭 不得面對 其事遂寢’²⁾

선생은 羅州牧使에 除授되자 곧 拜辭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탄식하기를³⁾

‘長孺⁴⁾社稷之器 豈合淮陽臥閣耶’

라 하니까 선생은 말하기를

‘居官內外 無非職分 惟其所在 盡心焉而已’

라 하고, 赴任하였다. 임지에 도착하여 우선 급히 베푼 정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⁵⁾

‘日具帽帶⁶⁾以臨民 祁寒暑雨不廢 爲政以恤鰥寡 抑豪右⁷⁾爲先 而尤嚴於律已 州劇地⁸⁾也 大懼民情阻滯 命置一鼓 下令曰 凡有欲訴者 必就擊之 於是有懷必達 事無壅遏 上下相得 州民大悅 且摘發如神 人不敢欺 訟有爭僞造 而莫辨者 公命取水 濕其粘連處 粘氣如昨 更取年久文籍 試之 則粘氣已盡 不勞問詰 情狀自露’

‘州有林氏羅氏 皆一邑巨族也 羅娶於林 無子而死 林竊取他人家兒 與婢陰謀 詐爲遺孕 而爲己出 羅門請辨其僞 而訟其亂宗 屢經推覈 積年不決 公一覷看破 明其爲僞而卽斷之 公論大決 一道詞訟 咸萃於公 剖決如流 無所停滯 撫民東吏 寬猛相濟 百廢俱舉 治聲大振’

그래서 임금이 다음과 같은 致賀의 글과 下賜品을 내렸다.⁹⁾

‘自上下書曰 知爾剛明爲政 聽斷不撓 姦猾深忌 田里知便 至爲可嘉 其賜表裏¹⁰⁾—

2) 先生 年譜 46歲 7月. 《文集 附錄》卷一.

3) 鄭述 撰 《先生 行狀》

4) 長孺 : 漢나라 汲黯의 字. 漢 景帝때 太子洗馬, 武帝 때 謁者, 나중에 東海太守가 되었음 遊俠를 좋아하고 氣節을 崇尚하여 武帝가 이를 꺼려하였으며, 옛날 社稷之臣에 가깝다 하였음

5) 鄭述 撰 《先生 行狀》

6) 帽帶 : 紗帽와 각띠. 帽帶官은 帽帶의 官服을 입은 지체 낮은 관리.

7) 豪右 : 세력이 강한 사람. 《左思》 ‘豪右何足陳’

8) 劇地 : 繁華하고 重要的 땅

9) 鄭述 撰 《先生 行狀》

10) 表裏 : 恩賜나 獻上하던 옷의 것 감과 안 감

襲

宣祖 19년 丙戌, 가을에 불이 나서 社稷壇 祠堂을 모두 태워버렸다. 고을 사람들이 새로 지을 것을 건의하였으나, '사직단이 불탄 것은 長吏(牧使)에게 있으니 덮어 둘 수 없다' 하고 드디어 갖추어 보고하여 罷職당하였다.

'及歸 室如懸磬¹¹⁾ 而怡然自適 絕口不談時事 有人自京來 但問聖體安否而已'¹²⁾

2) 教育 思想

牧民官의 任務는 政治이지만 教育이 가장 根本이므로 선생은 교육에도 더욱 心血을 기울였다. 社稷壇의 改築, 祠堂의 再建, 大谷書院의 創建, 退溪先生 聖學十圖, 溪山雜詠, 朱子書節要, 退溪先生自省錄, 儀禮圖, 鄉校禮輯 등의 刊行, 學問의 獎勵, 道義 精神과 禮俗의 振興 및 昂揚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폈던 것이다.¹³⁾

'蓋公之初赴也 首詣社壇 見其壇壝¹⁴⁾ 卑狹 位牌慢藏 以爲不敬莫甚 考禮相地 築壇建祠 一衣令式 春秋祭享 躬親蠲潔 吏民始知社稷之爲重'

'甲申春 芻大谷書院 本州素稱多士 而未有藏修之所¹⁵⁾ 公親相地於城西五里 錦城之麓 芻建書院 規模學令 一依白鹿洞¹⁶⁾ 立祠宇奉安 寒暄堂 金先生 一蠹齋 鄭先生 靜庵 趙先生 晦齋 李先生 退溪 李先生 使學者 知所師宗'

'乙酉 正月 哭樂峯公 哀慟廢衙 曰吾祿不及養 欲以事父者事兄 而兄又至此 吾何以爲心哉 葬祭諸需 盡心營辦'

'乙酉 八月還任 刊退溪先生 聖學十圖 又刊溪山雜詠 繕梓畢 又以爲後人愛玩 莫如并與其遺墨而傳之 乃取先生手筆 精加摹刻 成二本 又以文集編摩未成 不及在官時 登刊爲恨 見與趙月川書'

'丙戌 七月 …… 秋刊朱子書節要 退溪先生自省錄 先生以爲 此等文字 私藏巾衍 後學不得早見 實斯文欠事 乃與儀禮圖 鄉校禮輯等書 而并梓于本州'

'公於簿¹⁷⁾領之暇 單騎馳詣 與儒生講論經義 課其勤怠 作成之方 靡所不至 簡於自

11) 懸磬 : 縣警 縣磬 그릇 속이 비어 있는 모양에서, 집이 가난하여 아무 것도 없음을 일컫음

12) 先生 《年譜》 丙戌 先生 四十九歲

13) 先生 《年譜》 및 《行狀》에 의함

14) 壝 토담유

15) 藏修 : 쉬지않고 공부할 함

16) 朱子가 세운 白鹿洞書院

奉而厚於待人 大小賓客 皆接之以禮 族黨貧乏 亦皆軫念周恤'

'杜門觀書 接人後進 遠近就學 充衍齋舍 終日講磨 了無倦色' 18)

3. 錦城錄

1) 錦城錄 概觀

錦城錄이란 題目으로 文集과 續集에 실려 전하는 詩는, 文集에 55題 61首, 續集에 32題 43首, 모두 87題 104首이다. 그런데 문집과 속집에 같은 題目의 詩가 각각 나누어 전하는 것이 8題나 있으므로 실제로는 79題 104首이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 壬辰倭亂 中에 遺稿를 紛失하였기 때문에 文集을 初刊할 때 수록하지 못했다가, 뒤에 續集으로 보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羅州牧使로 在任한 三年間의 作品이 100餘 首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원인으로, 哀惜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錦城錄에 登載되어 있는 詩들 중에는, 宣祖 18년 1585 7월 휴가를 받아 歸省했던 약 한달 동안의 작품들과, 이듬해 10월 退任 後의 詩가 多少 包含되어 있다. 100餘 首의 詩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지만, 선생이 牧使 在任時에 政治와 教育에 쏟았으리라 생각되는, 眞率한 思想과 感情이 담긴 詩가 많이 전하지 않음에 대해, 筆者는 無限한 恨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2) 詩文學 作品

선생이 羅州牧使 在任 期間 中에 政治와 教育 文化 등 多方面에 걸쳐, 여러 가지 많은 功績을 남겼음은 앞에서 잠간 言及하였다. 아울러 다스리기 어렵다는 큰 고을을 맡아 隘路 또한 없지 않았을 것이고, 伯兄 藥峯公의 喪을 당했으며, 社稷壇에 火災가 나는 등의 苦難을 겪으면서, 생각과 感懷가 남달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그에 대한 많은 詩들이 創作되었을 것이지만, 지금 다 볼 수 없어서, 남아 있는 詩 몇 편을 감상해 본다.

(1) 學問과 教育의 世界

碧溪鳴玉抱青巒 푸른넷물 옥소리 푸른산을 안고돌아
洞府幽幽境自閑 동부안은 그윽해 저절로 조용하네

17) 簿 : 領也 거느릴부

18) 先生 《年譜》 丙戌 先生 四十九歲

岵幌掩來煙火隔 동구가¹⁹⁾ 가리워 연기²⁰⁾와 격해있고
 雲關開處海天寬 구름덩이 걸이니 해천처럼 환하네
 誰知俊造藏修地 누가알리 선비들 공부하는 이곳이
 只在尋常城市間 심상한 성시 간에 세워질 줄이야
 多賴諸賢興學意 제현들의 흥학하려 하는 뜻에 힘입어
 遨頭亦與涉文瀾 목사²¹⁾ 또한 문장을 함께하며 섭렵하네
 <大谷書堂董役 偶得進退體 示諸生 甲申>²²⁾

爲學如爲九仞巒 斯須作輒是偷閒
 夾持敬義工程密 并進明誠地步寬
 聖賢事業垂方策 日月光輝揭兩間
 更願諸賢勤體念 莫令平陸倒狂瀾
 <上同題, 續集 卷一, 錦城錄 登載>

앞 절 선생의 教育 思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錦城山 기슭에 大谷書院을 創建하고 지은 詩이다. 書院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조용하고 아늑하여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霧圍氣가 造成되어 있는 학교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곳에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의 다행함과 기쁨에다, 학자들의 불타는 向學熱에 힘입어 牧使인 自身도 함께 學問 研究에 참여하여 빛나게 학문을 진흥시키겠다는 意志가 담겨 있는 것이다.

小池春晚碧玻璃 작은 연못 늦봄에 파려처럼 푸르네
 鏡疊新荷鏡面齊 동진같은 연꽃이 거울 면에 가득하네
 若爲學得渠心性 학문을 터득하고 심성 연마 하려면
 生在淤泥不染泥 진흙속에 살아도 물들지를 말아야
 <錦城蓮堂 喜白文瑞(見龍)至>²³⁾

만약 學問을 하여 眞理를 據得하고 心性을 맑고 깨끗하게 研磨하려면, 어지러운 風塵 속에 살고 있더라도 거기에 타협하여 젖어들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19) 岵幌 : 岵는 산 바위, 幌은 揮帳인데 洞口를 말함

20) 煙火 : 시끄러운 인간 세상을 뜻하는 듯함

21) 遨頭 : 옛날 풍속에 太守를 말함. <老學庵筆記> '四月十九日 成都謂之浣花 遨頭宴於 杜子美草堂滄浪亭 傾城皆出 錦繡夾道'. <成都記> '太守出遊 士女則於木牀觀之 謂之遨牀 故太守爲遨頭 自正月出遊 至四月浣花乃止'

22) <文集>卷一, 錦城錄.

23) <文集>卷一, 錦城錄

(2) 王化의 讚揚

九重宵旰布仁聲	임금계선 밤낮으로 어진정치 펴시니
窮海蒼生耳盡傾	곤궁한 창생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네
齊齋聖心乾不息	홀륭하신 임금 마음 끊임 없이 내리시고
昭昭帝德日同明	밝고 밝은 왕의 덕화 매일같이 비취니
重雲忽逐恩風合	먹구름을 몰아와 은혜 풍화 합하여서
百穀還從化雨成	백곡이 환생토록 왕화 비가 쏟아지네
更賀相公能體國	상공의 바른 정치 다시금 하례하며
山靈先享未將誠	산령도 흠향하여 장차 정성 다하리라

〈次監司(洪淵)喜雨韻〉²⁴⁾

막 祈雨齋에 있으면서 비가 내림을 보고, 監司의 喜雨韻을 次韻하여 지은 것이다. 임금의 어진 政治, 天地 神明의 陰德, 監司의 善政 등이 한데 어울려 調和를 이루어야 雨順風調하게 되고, 따라서 五穀이 豐盛함으로써 백성들이 편안히 잘사는 것이다. 이러한 太平聖代를 希求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3) 遊頭的 懷抱

自我落炎洲	내가 염주 ²⁵⁾ 에 부임한 이후부터
三見錦江春	세번이나 금강의 봄을 맞이 하였네
春色不負人	봄빛은 사람에게 부담이 없고
年年梅柳新	해마다 매화와 버들은 새롭다네
獨有憂時鬢	시대를 근심하여 흰수염이 더해지니
非復舊時人	또 옛날 그시절 사람이 아니로다
不有金樽酒	금잔에 좋은 술이 있지 않았으면
何以澆嶠岫 ²⁶⁾	무엇으로 괴로움을 달랠 수 있으며
不有新知樂	새로운 즐거움이 있지 않았다면
誰爲四海親	그누가 사해친이 될수 있으리오
勸君且少留	그대에게 조금더 머물기를 청하노니
庶以永今辰	오늘 저녁 나와함께 읊조리기 바라노라
雖無可相贈	비록 서로 드릴 것은 있지 않지만
也有明月珍	또한 보배로운 밝은 달이 있지 않는가

〈早春 醉起謝客(丙戌)〉²⁷⁾

24) 《文集》卷一, 錦城錄

25) 炎洲 : 南海中之 州名 羅州를 뜻하는 듯함. 《海內十洲記》 '炎洲在南海中 地方二千里 去北岸九萬里'

26) 嶠岫 山の 층이 위엄 있게 높이 솟은 모양. 산이 겹쳐 깊숙한 모양.

27) 《續集》卷一, 錦城錄

客地에 牧使로 重責을 맡고 赴任한지 삼년이나 지났는데, 여러 가지 懷抱가 없
을 수 없다. 취한 기분으로 손에게 토로한 감정은 평소에 쌓인 괴로움과 孤獨의
一端이라 하겠다.

(4) 追慕詩와 輓詞

鶴背風高凌紫烟	학등에 풍채 높이 붉은 구름 타고서
天遊方丈幾多年	방장에 노니신지 몇년이나 되었는가
可憐白首門生事	가련한 백수문생 경영하는 일들은
溪月琴徽恨莫傳	시내달 거문고를 못전함이 한스럽네

〈智異途中 懷退陶先生〉²⁸⁾

智異山을 지나다가 退溪先生을 追慕한 詩인데, 퇴계 선생에 대한 懷抱를 그리
워 하면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펴보지 못하고, 정을 줄 곳이 없음을 한스러워 하
고 있다.

黃甲題名名字香	황갑 ²⁹⁾ 으로 급제한 그 이름 향기롭고
金門通籍在靑陽	금문 ³⁰⁾ 으로 통적하여 청양 ³¹⁾ 에 있었네
五年便養輸烏哺	다섯 고을 ³²⁾ 다스려 효도 ³³⁾ 를 다하였고 ³⁴⁾
六十休官謝帝鄉	육십에 휴관하여 제향 ³⁵⁾ 을 사절했네
氣宇恢弘河作量	기개와 도량 ³⁶⁾ 은 하해같이 넓으시고
文華瞻富錦成章	문화 ³⁷⁾ 는 너럭하여 비단무늬 이루었네
高才自古多淹滯	높은 재주 자고로 침체함이 많았으니
身後空留識者傷	사후 ³⁸⁾ 의 헛됨멈춤 식자들의 안타까움

零丁九歲失慈天 고독하게 아홉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28) 《文集》卷一, 錦城錄

29) 黃甲 . 科擧 甲科 及第. 科擧甲科及第者 其名附卷末 用黃紙書 故曰黃甲 《宋史, 選舉志》
‘朝謝後拜黃甲 其儀設褥於堂上 東西相向 皆并拜 拜已擇榜中 年長者一人 壯元拜之 復擇最少
者一人拜壯元 所以侈寵靈 重年好 明少長也’

30) 金門 : 궁궐문을 일컫음. 《漢書》 ‘歷金門上玉堂’

31) 靑陽 : 謂春也. 謂東向堂也. 《禮記, 月令》 ‘盟春之月 天子居靑陽左个’〔注〕靑陽左个 大寢
東堂北偏

32) 年은 手本에 城으로 되어 있으므로 五城 곧 다섯 고을 원(洪原縣監 平海郡守醴泉郡守 星州
牧使 密陽府使)을 지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함.

33) 烏哺 : 가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어미에게 먹이를 구해 먹임.

34) 輸 手本酬

35) 帝鄉 上天. 서울.

36) 氣宇 氣概와 度量. 宇는 氣量

37) 文華 . 文明의 빛 文章의 華麗함.

38) 身後 . 죽은 후 死後.

少小隨兄荷愛偏 어려서 형을 따라 편애함을 받았네
 教育已兼恩義至 가르침을 겸하고 은혜의리 지극해서
 立揚專倚父兄賢 입신 양명 오로지 부형께 의지했네
 十年風雨牀頭夢 십년의 풍우는 침상머리 꿈이요
 三載松楸壟上阡 산언덕의 산소에 삼년 동안 올랐었네
 未報深恩仙馭遠 깊은 은혜 못갠고 멀리 떠나 가시니³⁹⁾
 空教涕淚徹重泉 공연히 중천⁴⁰⁾ 향해 눈물만 흘린다네

蒼天無語但冥冥 푸른 하늘 말없이 어둡기만 하는데
 痛哭門閭禍久嬰 통곡하는 문려⁴¹⁾에는 오랜재앙 더하네
 風樹去年纔拭血 거년의 風樹恨⁴²⁾에 피눈물을 닦았는데
 鶴鶴前歲又摧翎 前歲에 仲兄⁴³⁾ 잃고 또 날개가 꺾였네⁴⁴⁾
 一兄二弟相依命 한 형과 두 아우가 서로 목숨 의지하며
 兩地三秋共結情 두곳에서 삼추로 한갓 정을 맺었다네
 豈意如今便長往 어찌 지금 길이 가심을 뜻했으리오
 投荒未及見儀刑 먼 곳에 떠나 있어⁴⁵⁾ 의형⁴⁶⁾조차 못뵈왔네
 〈伯氏挽詞(乙酉)〉⁴⁷⁾

선생은 庚辰年 1580 43歲 때 先考 判書公(靑溪先生)의 喪을 당했고, 三年 뒤인 癸未 1583 46歲 때 仲氏 龜峯公을 哭했으며, 二年後인 乙酉 1585 48歲 때 伯氏 藥峯公을 哭하게 되어 이 挽詞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으로서 겪을 수 있는 極限의인 狀況을 맞이하여, 더할 수 없는 哀痛함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임은 斟酌하고도 남음이 있다.

藥峯公은 靑溪先生의 뜻을 받들어 처음으로 大科에 及第하여 門戶를 열었으며, 선생에게는 16年長의 伯兄으로서 어려서부터 특수한 사랑과 가르침을 베풀었으므로, 선생은 先考에게 다하지 못한 孝道의 한스러움을 兄에게 유감 없이 풀어 보려 했던 것이다.

兄에 대한 情이 어떠했던가에 대해서는 사람을 보내어 問病한 다음의 詩를 보

39) 仙馭 . 崩御. 임금이 세상을 떠남

40) 重泉 . 깊은 샘. 먼 곳 저승. 황천.

41) 門閭 : 마을 입구에 있는 문. 집의 문 《禮記》 '仲夏之月 門閭毋閉'

42) 風樹之恨은 부모께 효도하려 하나 이미 부모가 돌아가심. 風木之悲. 風木嘆. 《韓詩外傳》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庚辰 1580 43歲 때 丁先考判書公憂.

43) 鶴鶴 : 물가에 사는 燕雀類의 작은 새. 할미새. 형제에 비유함 鶴鶴離渠(화할웅. 離渠는 할미새의 별명) 飛行鳴相應 以比兄弟. 《詩經》 '鶴鶴在原' 癸未年 1583 46歲 때 哭仲氏 龜峯公

44) 乙酉 1585 48歲 때 哭伯氏藥峯公憂

45) 投荒 : 멀리 도망하여 숨고자함 謂流竄荒遠之地也. 〈柳宗元 別舍弟宗一詩〉 '一身去國六千里 萬死投荒十二年'

46) 儀刑 : 儀形. 본. 법식. 모습.

47) 《續集》卷一. 錦城錄

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馳人適京洛 遠問我兄疾 初遣戒行遲 急期恐來速
 一日魂九逝 暫時心百折 王事諒靡盬 分炙亦何得
 誰將愈扁手 起兄於牀席 糜身償爾思 九死吾不惜
 (遣人間兄病)⁴⁸⁾

(5) 相逢 送別의 情

數年 동안 他鄉의 官吏로서의 생활중,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과 정든 이를 이별해야 하는 섭섭함이 없을 수 없다.

鈴齋衙罷月黃昏 鈴齋⁴⁹⁾ 衙門 과하니 달빛이 황혼인데
 坐想名區郭外村 이름난 곽외촌을 앉아서 생각노라
 多謝故人能記我 고인이 나를 알아 너무나 고마와서
 嘉語分與侑芳樽 좋은 말 맛난술을 나누면서 즐긴다네
 (謹次松亭踏靑韻 贈金雪月堂(富倫))⁵⁰⁾

선생은 丙戌년 7월 福川의 赤壁에서 노닐었는데, 당시 雪月堂 金富倫이 同福 守令으로 있었으므로, 같이 놀면서 글을 지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知己와의 아름다운 友情이 잘 나타나 있다.

碧波亭勝吾能說 벽파정의 승경을 나도 말을 할수있어
 大海連天眼界窮 큰 바다 하늘 닿아 한없이 멀고 머네
 君去亭邊問津吏 그대가 가거들랑 나루 묻는⁵¹⁾ 관리 되어
 歸帆誰掛鬱林風 훌륭한 風教 퍼고 당당히 돌아오게
 (送珍島之行)⁵²⁾

珍島의 원이 되어 가는 어떤 이에게 준 시인듯한데, 赴任後 학문을 장려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善政을 퍼고 돌아오라는 것이다.

孤城簫瑟少人烟 澤雁嗷嗷問幾年
 共理須憑循吏手 分憂政屬從臣賢
 九重昨日宣綸命 五馬今朝指海堧

48) 《續集》卷一, 海西錄

49) 鈴齋 . 고을 官衙

50) 《文集》卷一, 錦城錄

51) 問津 나루터가 있는 곳을 물음 학문에 들어가는 길을 물음 《論語 微子》‘使子路問津焉’〔集注〕津濟渡處.

52) 《文集》卷一, 錦城錄

忠孝元來無二致 嗟君志節史堪傳
 〈奉送洪仲實 赴肅寧〉⁵³⁾

(6) 子孫 訓戒

門戶之興替	문호가 흥하고 망하는 까닭이란
子孫賢不賢	자손의 어진가 아닌가에 있는 것
聞汝一言善	네가한 하나의 착한 말을 들으니
感淚自漣漣	감격해 눈물이 저절로 흐르누나
四海皆同胞	온세상이 모두가 같은 동포인데
況是一氣連	하물며 하나의 동기간에 있어서라
孩提同母乳	어려서 한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고
飲食即同筵	음식 또한 한상에서 함께 하였었지
良知與良能	태어날때 가졌는 양지 ⁵⁴⁾ 와 양능 및
敬愛本自然	공경과 사랑이란 본래 그런 것인데
奈何浸成長	어찌하여 점점 자라고 난 뒤에는
稍失其天	차츰 차츰 본성을 잃어 가고 있는가
及其分門籍	급기야 문적을 나누고난 후에는
妻兒滿眼前	처자식만 눈앞에 가득히 보인단다
物我便相形	물욕은 나에게 형상을 들어내어
牆內尋戈鋌	담안에서 서로서로 싸움 ⁵⁵⁾ 을 일으킨다
有利爭錐刀	이로움이 있으면 이익 ⁵⁶⁾ 을 타투나니
誰念骨肉緣	그누구가 골육의 인연들을 생각하는고
兄飽弟糊口	형된자는 배부르고 동생은 호구하며 ⁵⁷⁾
弟寒兄黃錦	동생은 춥게 살고 형은 비단 입을다면
至親若楚越	지친끼리 초나라와 월나라 같아져서 ⁵⁸⁾
貧富任相懸	빈한이와 부한자가 서로서로 멀어진다
彼哉何足道	저이들은 말할게 무엇이 있으리오
家訓在祖先	선조들의 가훈이 여기에 있느니라
吾門本寒素	우리의 가문은 본래부터 한미하나
世世守青氈	대대로 청전 ⁵⁹⁾ 을 지켜서 왔느니라
兩代無契券	양대에 걸쳐서 계권 ⁶⁰⁾ 이 없었으니

53) 《文集》卷一、錦城錄

54) 良知良能 :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知能과 才能. 神이 定한 原本의 法則에 의하여 善惡正邪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孟子》'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55) 鋌 : 작은창연 小矛

56) 錐刀之末 : 얼마간의 이익. 《左傳, 昭, 六》'錐刀之末 將盡爭之'

57) 糊口 : 입에 풀칠함 가난하게 삶.

58) 若楚越 : 서로서로 성글어져 무한히 멀어짐.

59) 青氈 : 青色之毛氈也 轉謂儒素之代辭. 其累世讀書者 或稱青氈世業. 《晉書 王獻之傳》'獻之夜臥齋中 而有偷人入其室 盜物都盡 獻之徐曰 偷兒 青氈我家舊物 可特置之 群偷驚走'

疇爭普明田	그누구가 보명전을 타투기나 하겠는가
常愧我不肖	항상 내가 불초함을 부끄러워 하였는데
家聲汝又傳	집안의 명성을 내가 또한 전하누나
充汝此一念	네가 이같은 일념을 확충 한다면
何但蓋前愆	어찌 다만 전일 허물 덮을 뿐이라
堯舜雖大聖	요임금 순임금이 비록 대성이시나
孝悌可至旃	효도하고 공경하면 이를 수 있으며
鄒孟炳四端	추나라 맹자가 사단 ⁶¹⁾ 을 밝혔으니
擴充如達泉	확충만 한다면 샘물같이 솟느니라
汝如體聖訓	네가 만약 성인교훈 체득 한다면
請度心之權	마음의 기준을 헤아릴 수 있으리라
	〈與長兒濼 ⁶²⁾ 〉

‘丙戌年(1586) 8월 18일 여자 종 두 사람을 만아들에게 별도로 주었더니, 만아이가 兄弟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요청하면서 굳이 사양하기에 취중에 붓을 찾아 이를 지었다’ 고 注를 달아 놓았다.

형제간의 友愛를 극진히 실천한 예는 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히 있는 것이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仁과 義에 대한 信念이 確實하고 透徹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本性이며, 행복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擴充만 시킨다면 堯舜같은 聖人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仁을 실천한 만아들의 행동과 마음 가짐에 감동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며, 나아가 이를 모범으로 하여 모든 자손들이 길이길이 본받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4. 맺는말

先生の 錦城錄은 지금 매우 疏略하게 傳하므로 그 全貌를 보기 어렵지만, 남아 있는 詩文 만으로도 선생의 정치와 교육 사상 및 일상 생활의 참모습을 如實히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선생의 剛直한 性品과 不屈의 意志는 문집에 있는 여러 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책임과 의무감은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仁과 義를 바탕으로 한 孝悌忠信의 사상과, 人道 그것을 실천한 삶의 標本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60) 契券 文書와 文券

61) 四端 : 仁義禮智

62) <續集>卷一, 錦城錄

地方 長官으로서 學問의 發展과 教育의 振興에 心血을 기울인 精誠은 오늘날의 政治人들과 教育하는 이에게 살아 있는 教訓이 될 것이며, 인간적인 큰 사랑은 刻薄한 現代人들에게 龜鑑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96. 5. 古文研究會 論文 發表 要旨〉